

송영길 “호남출신 당 대표 나와야”

민주 당대표 후보 3인 본격 후보 이해찬 “20년 집권 기틀 마련” 김진표 “유능한 경제정당” 호남 당심 향배, 당락 변수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에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경선을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3명의 당권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호남지역 당원들의 표심 향배가 주목된다.

8명의 후보 중 예비경선을 통과한 송영길(56)·김진표(71)·이해찬(66) 의원(기호순) 등 3명의 후보들은 이번 주를 시작으로 불꽃 튀는 당권 레이스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호남의 당심 향배가 당락의 기를 것으로 전망된다. 3명의 당 대표 후보 중 송영길(고흥) 후보가 유일한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남 당심을 얻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4선의 송영길 의원은 29일 ‘젊은피 수혈론’을 앞세우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개혁과 혁신’을 내세우며 3명의 당 대표 후보 중 유일한 50대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인물’을 강조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DJ)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20년 전 당에 젊은피를 수혈했던 DJ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생각으로 참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되면) 20-30대 에너지를 키워내 ‘청년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당내 386그룹의 표심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며 승리를 확신했다. 고흥 출신인 송 의원은 “이번에는 호남 출신 당 대표가 나와야 할 때다. 당원들 사이에선 이미 그같은 여론이 급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4선인 김진표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며 바다 표심을 훑었다. 김 의원 역시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는 지난 경험을 앞세워 ‘경제 당 대표’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확실하게 지원해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후 우리당 지지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근본 원인”이라며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고자 당대표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느끼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폭염처럼 갈망이 뜨거워 한잔 사이드를 마신다고 해결할 게 아니라 시원한 소나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갈망을 해결하는 경제 소망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7선의 이해찬 의원은 지난 28일 첫 일정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가(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친노·친문 진영의 ‘좌장’ 입을 부각했다. 당내 친노·친문 성향의 표심을 일찌감치 불태워 매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낸 이 의원은 리더십과 유능함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를 힘있게 뒷받침해 ‘20년 집권 정당’을 만드는 데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뒷받침, 당의 현대화, 남북협력 지원, 20년 집권개혁 만들기가 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직 생활을 오래 해 왔는데 이것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소임”이라고 밝혔다.

당 대표 선출은 대의원(45%), 권리당원(40%), 일반국민(10%), 일반당원(5%)의 한 표로 선출되는 만큼 유권자 비중이 높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심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당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설훈(4선)·유승희(3선)·박광온·남인순(이상 재선), 박정·김해영·박주민(이상 초선) 의원, 황명선 총남 노산시장 등 8명이 벌이는 다섯 자리를 놓고 벌이는 최고위원 선거 경쟁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8명의 후보 중 유일한 호남 출신인 박광온(해남) 의원은 이날 권리당원 증가에 권리당원 1표의 가치는 오히려 약해졌다면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당원주권 당헌안’을 발표하며 강도 높은 당 혁신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다. /최권일 기자 cki@연합뉴스

민생경제법안 처리 탄력 받나

여야 TF 가동...규제혁신·소상공인 지원법 처리 공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 본격 가동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 3당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27일 첫 회동을 한 데 이어 오는 31일 회동에서 각 당의 중점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 3당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차를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TF에서 우선 논의할 중점법안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법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을 내걸었다.

규제 샌드박스법에는 금융혁신지침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이밖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역시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권은 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개놓는 것에 불쾌한 만큼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에도 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과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관련 법안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신산업 관련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규제완화 권한을 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데이터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간이사업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의당 ‘심기일전’

이번주 당무 재개

노회찬 의원을 잃은 정의당이 이번 주 당무를 재개한다.

정의당은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는 노 의원의 유지에 따라 정치개혁, 경제·사회 격차 해소 등 노 의원이 주장한 진보 가치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의당 의원들은 노 의원의 삼우제 다음날인 30일 오전 비공개 모임을 하고

향후 진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빈자리가 된 원내대표 재선출, 그리고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복원, ‘드루킹’ 특검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자회견을 열어 노 의원에 대한 뜨거운 추모 열기를 보여준 국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특히, 노 의원의 평생 숙원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

검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4년 구형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의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 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리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현실적인 시장 후보, 장성민 전 의원, 김철근 대변인, 장진영 전 서울 동작구청장 후보 등 대부분 국민의당 출신이다.바른정당 출신으로는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전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부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고소인 김지은씨도 이날 법정에서 출석해 “본질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5명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도 ‘전대 모드’

‘安心·손학규 등판·1인2표제’ 3대 변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전당대회로 모드로 진입하고 있다. 당장 차기 지도부를 뽑는 9·2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29일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내에서는 이번 전대 판세를 기를 변수로 크게 ‘안심(安心·안철수 전 의원의 마음)과 손학규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판 여

부, 1인2표제가 꼽힌다.

우선 안철수 전 의원은 지난 12일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두문불출하며 내달 독일 출국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당의 최대주주격인 만큼 안심의 향배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원의 4분의 3이 국민의당 출신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그동안 안 전 의원 지지 성향인데다, 전대에서 50%의 비중을 차지

하는 책임당원의 경우 충성도가 더 강하다. 안 전 의원은 전대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간접적인 지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전 위원장의 실제 등판 여부도 판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출마 여부를 저울질해오던 손 전 위원장은 최근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평에 오르는 당권 주자들보다 나이(71세)가 많고 과거 이미지가 약점으로 꼽히지만, 이해찬(66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권 당권에 도전했고, 김병준(64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나서자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도 있다.

연기방식의 1인2표제 역시 변수다. 도전을 고민 중인 인사들 상당수가 국민의당 출신이고 당원 대다수 역시 국민의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바른정당 출신 후보들은 ‘두 번째 표’ 확보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당권 주자는 손 전 위원장과 함께 김성식 의원,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문병호 전 인천시장 후보, 장성민 전 의원, 김철근 대변인, 장진영 전 서울 동작구청장 후보 등 대부분 국민의당 출신이다.바른정당 출신으로는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전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총 14개 (월수의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주)대신경매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투 138평 건문 491평 ▶ 감정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투 69평 137평 ▶ 감정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투 80평 건 144평 ▶ 감정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투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정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토지 기타 추천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정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정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정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정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정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정가 9억3천 → 최저가 9억2천	② 서구 병촌동 현대빌라 (40평)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⑥ 광산구 월전동 (공장) 토1989평 건2,400평 ▶ 감정 68억 → 최저 47억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8평 건272평)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7억2천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 (2평) ▶ 시세 6억 → 최저가 4억2천	⑦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506평 건528평 ▶ 감정가 12억 → 최저 9억8천
③ 서구 치명동 (3층상가) 103평 ▶ 감정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빌라 (25평) ▶ 감정가 1억9천 → 최저가 1억2천	⑧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④ 북구 용봉동 (2층중 6층) 117평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④ 첨단지구 호반베리더스 (25평) ▶ 감정가 3억5천 → 최저 3억5천	⑨ 전남 장성 북 (공장) 토610평 건176평 ▶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⑥ 북구 영안동 (근린상가) ▶ 감정가 4억4천백 → 최저가 4억4천	⑥ 광산구 운암동 남양이퍼드 (24평) ▶ 감정가 1억6천 → 최저 1억2천	⑩ 남구 백운동 (빌라) 토66평 건145평 ▶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할 (경매 직권,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